

나라를 굳건히 받드는 믿음직한 고임돌

자식들을 대바르고 정직하게 키우며 그들의 마음속에 애국의 싹을 심어주고
지극한 정성을 고여 거목으로 자래워나가는 우리의 어머니들,
이들의 가슴속에는 소중히 새겨져있다.

우리 여성들이 훌륭한 가풍과 국풍을 이어주며 나라를 떠받드는 믿음직한
고임돌이 되어야 한다는데 대하여 가르쳐주신 경애하는 총비서동지의 말씀이.

자식들을 옳바로 교양하는것이 한 가정의 대를 잇는 문제만이 아니라 혁명의
장래를 결머질 계승자들을 키우는 더없이 숭고한 혁명사업이기에 우리
어머니들에게 안겨지는 경애하는 총비서동지의 사랑과 믿음은 정녕 끝이 없다.

몸소 건설주, 시공주가 되시여 여성들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하는 연구소도
일떠세워주신분, 한 여인이 삼가 올린 편지를 보시고 자식이 잘되는것을 보며
기뻐하고 그것을 무엇과도 바꿀수 없는 한생의 락으로 여기는것이 이 세상
어머니들의 마음이라고 생각한다는 은정깊은 친필을 남기신분, 우리
어머니들에게 질 좋은 화장품을 안겨주시려 다심한 정을 기울이신분이
우리의 경애하는 총비서동지이시다.

그이의 믿음어린 손길이 있어 우리 어머니들은 자식들을 혁명의 믿음직한
계승자, 나라의 인재들로 키우기 위해 온갖 심혈을 기울이며 거기에서 한없는
보람과 긍지를 찾고있는것이다.

자식들이 어릴 때부터 당과 사회주의제도의 고마움을 알고 나라를 사랑하며
집단과 동무들을 귀중히 여기도록 보살피고 이끌어주면서 조국앞에 본분과
도리를 다해가는 우리 어머니들이다.

절세위인의 령도밑에 숭고한 애국심의 체현자들인 우리 어머니들의 역할은
나날이 높아가고 그로 하여 우리 조국은 보다 활력에 넘쳐 더 밝은 미래를
신심높이 마중해간다.